말해봅시다

알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교내 대표전화 불친절 심각

작업환경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961-0114라는 전화번호를 나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 전화번호는 나 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에 적을 두었던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학생보다는 졸업동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 믿고 싶다.

학생들이야 학교에서 발행하고 있는 수첩을 갖고 있어 학교대표전화를 이용하는 비율이 적을 수 있지만 학교를 떠나 있는 나로서는 이 전화번호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

특히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여타 일반인들은 이 전화를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표전화기 앞에 앉아 있는 이의 불친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대표전화 안내인의 불친절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첫째, 전화벨이 몇번이 울렸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전화가 고장난 것도 아니요. 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한참을 기다려야 '참으로 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둘째, 떠억하니 사무적인 말투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그리 급한지 대답도 건성으로 하기 일쑤이고 두가지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지 못할 정도로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이편에서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는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싶지만 이 말을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전화는 끊어지고 만다. 무엇이 그리 바쁜가? 상대방의 고맙다는 말도 듣기를 거절할 정도로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가?

나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경희대학교가 어느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흡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학교의 대표목소리'가 이렇게 불친절하면 야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이 글에서 제안을 하고 싶다. 정말 쉴 틈도 없이 전화를 받을 정도로 일이 한들고 작업환경이 나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라는 것과 대표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 지면을 통해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지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다시는 그 불친절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

이 성 수
〈동문·국문91년졸〉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대학인

진취적 패기로 부담감 줄여야

11월이면 4학년은 바빠진다. 11월 초부터 브룸까지 띄엄띄엄 행해지는 각 기업의 공채시험과 면접에 맞추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4학년은 또다시 고3학년생 버금가는 시험의 압박과 긴장속에 시달리며 토플책을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 한다. 고3때의 대학입학이라는 명목적인 목표와는 달리 평생 자신이 종사하여 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대학에 와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좀 더 깊은 학문을 배웠고, 스스로 이 사회에 대해 안다고 자부해 보지만 결국 '학생'이라는 신분 앞에서의 용기일 수도 있고 은연중에 미세한 자신감마저 들어있는지 모른다. 지본주의를 바른 입고 나만이라도 정의롭게 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어느새 그 속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는 선배들도 보아왔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백기 없는 4학년을 더욱 슬프게 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은 대기업의 공개모집은 및 좋은 개살구처럼 80%이상의 사원들이 시험 전 모두 내정되어 있으며, 인턴 사원제로 인해 대학생활을 갈갈히 조여오기도 한다. 특히 여성 대졸자 취업은 실력에 앞서 성차별이라는 벽 앞에 퇴짜이 허물어져 버리고, 수 많은 남자 경쟁자를 넘고 넘어야 한다. 수원 캠퍼스에서도 졸업 예정자를 위해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과 사무실 벽보판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에서는 대학인원만 증폭시키는 단순한 방법으로 수험생을 유린하고, 모 기업은 대선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갑작스럽게 신입사원 모집을 늘리고도 있다. 대학이라는 그학력 생활을 거치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좀더 성숙한 사회인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꿈도 점차 현실앞에 무너지고 생존경쟁이라는 굴레속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도 한 선배가 모 기업체의 입사원서를 끄적이며 자기 소개서를 조금이라도 진솔하고 체계적으로 쓰기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또한 2년후 내 자신은 더 큰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진취적이던 이 땅의 모든 젊은이의 어깨를 누르는 권력앞에 순수하고 정의롭게 부르짖는 몇몇의 사람들이 위태해 보인다. 그래, 우린 적어도 지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스레 다짐해 본다.

고 현 주
〈불문·2〉

⊙ 대학인과 예절(3)

대학내의 옷차림 문화

옷차림과 몸가짐은 인품의 척도

대학이란 새로운 진리의 가치를 찾조하는 곳으로 젊은 지성인들이 그들의 이상과 꿈을 마음껏 추구해 볼 수 있기에 대학생활이란 어찌면 꿈과 낭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학이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학생들의 자율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처럼 복장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요, 머리를 규정대로 짜았는지 검사같은 것도 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많은 것을 해나가야만 한다.

여기에서 학생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오직 공부를 잘해 대학에 가기위한 통제뿐이었지 실상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몸가짐이나 옷치림등에 대한 기본예절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했기 때문이다.

자율이란 타율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남의 강요에 의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이지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대학생활에서의 올바른 몸가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서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몸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시선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똑바르고 당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자세를 갖춘다든가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는 가슴을 펴고 시선 역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대화내용에 관심을 표시하며 자연스러운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이지만 삼대방이 대화를 계속한다든가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동안 하품이 나온다든가 재채기가 나올 경우에는 전면에서 입을 크게 벌린다든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삼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몸가짐의 예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머리의 모양이나 머리의 길고 짧음은 물론 개인의 개성문제이지만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은 또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라 할 수 있다. 남학생이나 여학생을 불문하고 머리가 단정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옷차림은 무엇보다도 단정한 것이 중요하다. 너무 사치스럽고 혼란한 옷차림은 대학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 반면에 너무 막차려 입은 옷차림은 삼대방에게 불쾌감과 혐오를 줄 수도 있다. 요컨데 의젓하고 당당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는 자연스러운 몸가짐과 단정한 옷차림은 바로 그의 교양과 인품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다.

〈수원캠퍼스 학생생활 연구소〉

기성세대 답습하는 퇴폐문화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실 타파

나라의 장래는 그 시대 젊은이들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속에서의 한국의 미래는 어떠한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의 패기와 정열, 노력 등이 있기에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인의 젊은 저력은 여러 방면에서 부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일에는 보편적으로 양면성이 있어 빛이 있으며 그림자가 생기듯 새로움을 창조하고 보수된 것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세상을 모순덩어리로 보고 부조리를 낳게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 젊은 부전자전이라 할 수 있는 기존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 더 발전시키고 있다.

비슷한 예로 압구정동의 오렌지족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행태나 서구 문화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서울시내 곳곳의 외제문화의 거리들, 심야만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촌이나 대학로등 모이기만 하면 마시고 즐기고 하는 퇴폐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

나름대로의 욕구 불만 해소의 장으로써 타당성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건전문화 형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과소비, 모여성 부재 현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난날의 남비된 시간과 열정들을 가지런히 묻어두고 젊음의 이상을 가슴에 안고 현실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차곡차곡 해결해 가야만 한다.

우리에겐 시간, 젊음, 용기등이 있기에 훌륭한 정신문화를 형성해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만 한다.

한 상 천
〈사회대 경영·2〉

새로운 아이디어 구현의 연구인

국제 경쟁력 강화 절실

독창적인 연구가 선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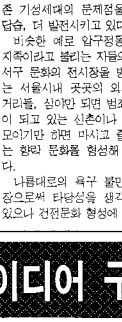
내가하는 공부

경희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지난 10년동안 실리콘 박막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88년 이전에는 비정질 실리콘 및 실리콘 소자에서의 물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89년부터는 반도체 실리콘박막을 이용한 박막트랜지스터, 태양전지, 새로운 방법에 의한 실리콘 및 실리콘화합물의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세분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비정질실리콘 혹은 다결정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작에 사용된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액정을 이용한 액정디스플레이(LCD),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반도체에서 빛이 나오는 성질을 이용한 ELD 등이 있다. 이중에서 박막트랜지스터는 화질이 좋은 액정디스플레이 제작에 가장 중요한 소자로 이용된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TFT-LCD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질 실리콘 TFT 제작에 성공하였고, 현재에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비정질 실리콘 TFT 와 다결정 실리콘 TFT제작에 노력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가 없는 깨끗한 에너지의 필요성이 점점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깨끗한 에너지의 한 종류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화하는 태양전지이다. 비정질 실리콘은 박막 형태로 유리 등의 값싼 기판 위에 300℃의 낮은 온도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비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미래의 유망한 태양전지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정질 태양전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태양전지의 효율이 빛을 계속 받으면 감소된다는 점이다.



장 진
(문리대교수·물리학)

그런데 1991년도에 나의 실험실 대학원 학생들이 새로운 종류의 태양전지를 설계하여, 효율감소가 거의 없는 태양전지 제작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허로 출원중이고 연구결과는 국제학회에서 초청 강연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실리콘 박막 연구를 계속중이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반드시 독창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험하는 장비를 제작할 때부터 독창성이 포함되어야 된다. 실험실에서 사용 중인 시료 제작 장비(RPCVE, APCVD)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비를 이용한 결과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얻은 연구 결과들이다. 학교에서 연구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비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수가 해야될 일 중의 하나이다.

교수동정

라종일교수 중국행

【서울캠퍼스】◆정규림(치대·치의학)교수=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연수회 참석차 일본방문 ◆라종일(정경대·정외과)교수=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중국방문

【수원캠퍼스】◆선우섭(체육과학대·체육)교수=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쪼꾸바 대학 및 일본국립 환경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2차 실험을 목적으로 일본방문 ◆우제린(섬유공학)교수=오는 2월28일부로 정년퇴임.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락규(경제·91) ▲안현식(경영·91) ▲한종호(가곤·92) ▲구희경(간호·91) ▲김정진(한의예·91) ▲조용호(한의예·91) ▲류찬천(한의예·92) ▲홍은단(체육·91)

분 실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김순옥(약학·91)=붉은색 가방(통장·돈) ▲박중현(체육·3)=밤색지갑(학생증, 선수증등) 국선관 전화박스에서 분실 ▲임지연(의상·1)=학생증

동문모임

경상·성지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송주고·여고=오는 14일 오후6시 21세기 ▲청랑고=오늘 오후5시 복래관 ▲성석고=오는 10일 오후6시 마니분식 ▲갈룡고·여고=오는 14일 오후6시 열두달소고기부페 ▲선재고↔오는 11일 오후6시 With us ▲미림·남강고=오는 13일 오후6시 안개 ▲순천고=오는 14일 오후5시 프리즘호프 ▲중동·숙명=오는 14일 오후5시30분 갤러리 ▲경상·성지고=오는 14일 오후5시 Guess ◆광우회 ▲해남=오는 11일 오후5시30분 공대앞 돌다방 ▲대천·보령=오늘 오후6시 정문 ▲목포=오는 14일 오후2시30분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수원캠퍼스】▲휘문고=오는 12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고흥고=오는 10일 오후5시30분 외대앞 돌다방 ▲대아고=오는 10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선일고·대성고=오는 12일 오후5시 공대휴게실 ▲경남고·부산여고=오는 10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자양고=오는 13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구정고=오는 10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제물포고·인일고=오는 12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향우회 ▲목포=오늘 오후5시30분 경희식당

알림터

동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진미형(국문·4) ▲장병순(생물·1) ▲권기현(법·1) ▲김성일(법·1) ▲조문식(신방) ▲위룡(경영·2) ▲왈진복(경영·1) ▲최광일(경영·2) ▲김철원(경영 ▲권순환(회계·2) ▲진미영(영교·1) ▲장지수(영교·2) ▲이복심(식영·4) ▲고경란(의예·1) ▲임강민(한의분·3) ▲이경우(한의분·3) ▲신병철(한의분·3) ▲양성완(한의분·3) ▲이선호(한의분·3) ▲김범식(한의분·3) ▲이능기(한의과) ▲김은식(치의예·2) ▲박중현(체육·3) ▲김효영(무용·3) ▲김기한(야구부) ▲양광동(삼의원 515호) ▲정수현(삼의원 313호)

【수원캠퍼스】▲김상룡(영문·1) ▲강창민(행정·2) ▲안혜연(행정·3) ▲박종형(경영) ▲임창섭(물리·3) ▲신성욱(물리·4) ▲문병훈(물리·4) ▲김남선(화학) ▲최기봉(환경·3) ▲김성천(환경) ▲이주형(섬유) ▲김윤영(섬유) ▲이상훈(전자) ▲이승형(건축) ▲조윤호(건축) ▲박평지(건축·2) ▲김재현(건축·1) ▲유호동(산업공·3)

검정고시 연합동문회 개최

전국대학 검정고시 연합동문회는 오는 14일 정오 국제회관(상송통신대 소재)에서 '검우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고 침

지난 2일자 본보 교내연구비지급 기사중 수원 2천1백90만원을 4천3백80만원으로 고침니다.

대학생 산문공모 당선작 ②

■우수작

금성이 마련한 '대학생산문공모'의 당선작중 최우수작에 이어 우수작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출석체크에서 과제제출까지 간편하게…"

강의실 입구에 설치된 검색기에 학생증을 통과시켜 출석을 확인시킨 후, 자신의 자리에 앉은 유급생군은 PC의 파워스위치를 켰다. 강의의 시작이다. 유군은 자신이 가지고온 개인 디스켓을 꺼내어 드라이브에 삽입했다. 학생 개개인의 자료는 강단에 있는 교수의 컴퓨터에 입력될 것이고, 후날 교수의 평가가 첨가된 상태로 되돌아올 것이다.

"강의실에서도 컴퓨터와 결합된 시청각학습을…"

강의실 앞편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스크린에 강의의 소제목이 나타난다. 물론 바로 앞에 있는 PC의 모니터에도 앞에 펼쳐진 스크린과 동일한 화면이 출력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20세기 후반의 제3세계'다. 교수님이 1982년에 일어난 에디오피아와 소말리아의 국경분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끝마치고 화면속의 아프리카 지도에서 에디오피아를 가리키자 에디오피아만을 다시금 확대시킨 화면이 나오고 그 나라를 간략히 소개하는 글이 overlap된다. 곧이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선택사항을 열거한 항목이 나오고, 교수님이 이들 중 경제부문을 택하자 최근 10년간의 GNP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 화면의 한쪽 일부분에서는 에디오피아의 전략산업의 현황에 대한 영상자료가 쉴새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한다.

"인간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기술이면 좋겠어요."

강의 종료 몇분전, 학생들은 각자의 디스켓에 오늘 배운 내용과 교수님이 주신 과제가 저장되었음을 확인한다. 그는 비이있는 terminal을 이용해서 오늘의 강의내용을 다시한번 탐색해 볼 예정이다. 의문이 생기면 교수의 terminal로 들어가 메모를 남길것이고, 교수는 그의 terminal로 답을 보내거나 혹은 숙이나 한번 하면서 같이 토론해보자는 메세지를 띄울지도 모른다. 교수와 학생은 이제 지대한 퍼퓨케이션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의견과 사상을 교환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예전과 같은 시나친 격식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체계이다. 첨단과학기술은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게 될 것이다.

•우수진/숙명여대 화학과

인간과 기술의 만남 —

테크노피아

테크노피아란 금성의 첨단 전기·전자기술을 통해 보다 원활하고 쾌적한 인간생활을 이루는 기술혁신을 말합니다.

21세기 테크노피아의 대학 — 금성의 첨단기술로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인간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21세기 대학생활에도 새로운 첨단기술이 응용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학문탐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수진양의 글에 등장한 새로운 교육수단들은 금성이 개발하고 있는 CD-I, CD ROM, PC통신, LAN등을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한 정보활용이 가능해지며, 교육환경 또한 한차원 발전될 것입니다.

백과사전 270권을 한장의 디스크에 — CD-ROM

인간이 배워야할 많은 지식과 세상 곳곳의 문화가 영상, 음향, 움성을 통해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CDP와 컴퓨터를 하나로 — CD-I(Compact Disc-Interactive)

CD에 담긴 영상, 음악, 음성,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 각종 정보를 다양한 메뉴선택과 도움말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찾아 시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뉴미디어, 위성통신 및 ISDN 등 전기·전자의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34개 금성연구소의 8,000여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성